

# 2023년, 대전시민 행복했나요?

## 2023 제3회 대전형 행복지표 설문조사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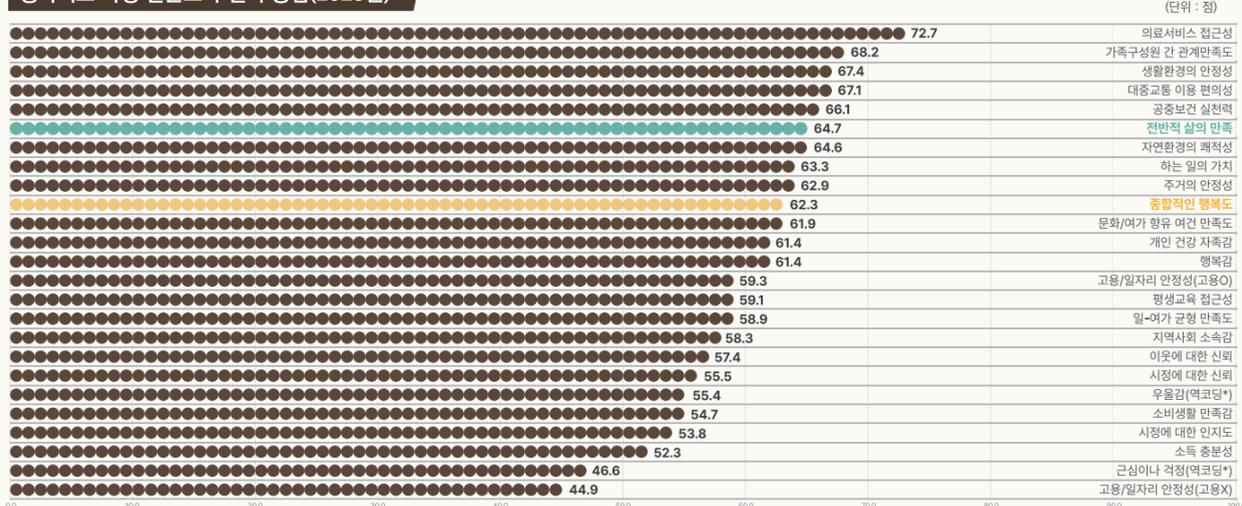
대전세종연구원 도시정보센터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대전시민 행복도 조사를 수행해 왔으며, 2023년에는 대전시민의 행복도 증감과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다. 본 호에서는 2023년에 진행된 제3회 대전형 행복지표 설문조사 결과를 담았다. 2023년의 대전시민 행복도는 2022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, 지역공동체 요인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다.

###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행복했어요

2023년 '종합적인 행복도' 문항 62.3점, 2022년 54.8점에 비해 7.5점 상승

- 2023년 대전시민의 행복도 측정 조사 결과, '의료서비스 접근성'(72.7)에 대한 대전시민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, '고용/일자리 안정성(직장이 없는 응답자)'(44.9) 평가가 가장 낮음

#### 행복지표 측정 설문조사 결과 종합(2023년)



자료: 주혜진·류형원(2023), 「2023 대전형 행복지표 조사결과」, 대전세종연구원  
 주1) 0~10점의 11점 척도로 조사한 행복지표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점수로 나타냄

- 전년 대비 증가폭이 가장 큰 문항은 '전반적인 삶의 만족'(10.8▲), 감소폭이 가장 큰 문항은 '근심이나 걱정'(-3.4▼)
  - '근심이나 걱정', '우울감', '고용/일자리 안정성(직장이 없는 응답자)' 점수는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대전시민은 근심이나 걱정, 우울감이 커졌고, 지역 내 고용/일자리 안정성(현재 직장이 없는 응답자)에 대해 안정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
  - 전년 대비 감소한 세 문항의 응답 결과를 연령대별로 보면 근심이나 걱정, 우울감은 30~40대가 가장 컸고, 현재 직장이 없는 응답자가 생각하는 지역 내 고용/일자리 안정성은 40대가 가장 안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함
- 2023년 대전시민의 행복도는 전년 대비 감소한 세 문항의 감소폭은 전년 대비 증가한 다른 문항의 증가폭보다 작고 세 문항 이외에 '전반적인 삶의 만족', '의료서비스 접근성' 등 다른 문항의 점수는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전시민의 행복도는 전년 대비 상승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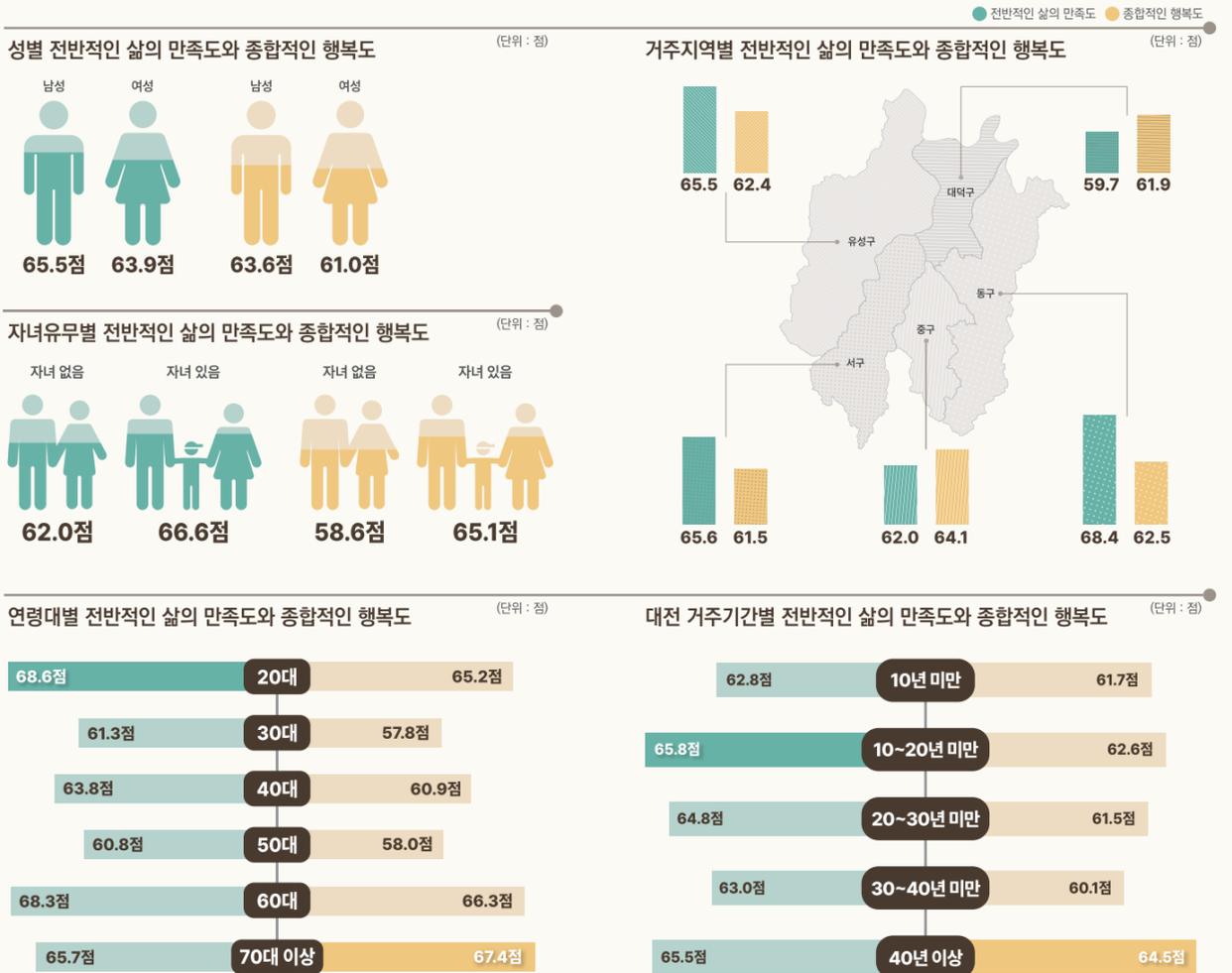
#### 행복을 구성하는 세부 지표별 측정 결과의 변화



### 누가 더 행복했나요?

삶의 만족도와 행복도는 남성, 20대, 자녀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

- 응답자 특성별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종합적인 행복도 응답결과를 100점으로 환산해 비교함
  -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고, 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으며, 동구가 다른 자치구보다 높고, 자녀가 있는 가구가 자녀가 없는 가구에 비해 높으며, 대전에 10~20년 미만 거주한 시민이 비교적 삶의 만족도가 높음
  - 종합적인 행복도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고, 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으며, 중구가 다른 자치구보다 높고, 자녀가 있는 가구가 자녀가 없는 가구에 비해 높으며, 대전에 40년 이상 거주한 시민이 비교적 행복도가 높음



### 대전시민을 행복하게 만든 요인은 무엇인가요?

지역공동체 요인이 대전시민의 행복도에 가장 큰 영향 미쳐

#### 종합적인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



- 지역공동체, 경제활동, 도시생활, 정신적 건강 순으로 종합적인 행복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
  -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는 타인과의 협력 및 지역공동체 참여를 촉진하여 소속감, 정체성, 삶의 보람 등을 향상시켜 개인의 복지와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, 사회적 자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
  - 2023년 조사 결과, 지역공동체 요인을 구성하는 시정에 대한 인지도(53.8), 시정에 대한 신뢰(55.5), 지역사회 소속감(58.3), 이웃에 대한 신뢰(57.4) 항목은 본 조사에서 평균 점수가 60점(100점 환산)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'보통' 정도 수준임
  - 대전시민의 행복도 향상을 위해 지역공동체 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

- (1) 경제활동 : 고용/일자리 안정성, 소득 충분성, 소비생활 만족감, 주거의 안정성, 일-여가 균형 만족도,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, 하는 일의 가치
- (2) 도시생활 : 의료서비스 접근성,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, 생활환경의 안전성, 공공보건 실천력, 자연환경의 쾌적성, 가족구성원 간 관계 만족도
- (3) 지역공동체 : 시정에 대한 인지도, 시정에 대한 신뢰, 지역사회 소속감, 이웃에 대한 신뢰
- (4) 정신적 건강 : 근심이나 걱정, 우울감

자료: 주혜진·류형원(2023), 「2023 대전형 행복지표 조사결과」, 대전세종연구원

